

# 순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위상 확립

## 영아안심반 등 선제적 보육안심망 구축 365일 돌봄 강화...거점어린이집 추가로

순천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혁신적 보육 정책을 펼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정부보다 3년 앞서 도입한 '순천형 영아안심반'을 포함해 보조교사 확대, 필요경비 인상, 365일 돌봄 체계 확충 등 선제적 보육안심망을 구축하며 전국 보육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2023년 도입한 '순천형 영아안심반' 사업이 올해 정부의 정책으로 확대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올해 '0세반 비용 개선 사업' 시행으로 순천시 정책의 선도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낮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에게는 세밀한 돌봄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0세의 경우 보육교사 1명이 영유아 3명에서 2명을 돌보게 된다.

현재 순천시 내 144개소 어린이집의 346개반이 영아안심반으로 지정돼 있으며, 시는 연간 2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보육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에 시비 1억9200만원을 확보해 현원 20인 이하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20명을 추가 배치한다. 시비를 통한 보조교사 추가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지원으로 순천시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은 총 316명으로 늘어나며, 추가 배치되는 보조교사는 개소당 월 120만원씩 8개월간 지원된다. 이를 통해 담임교사의 휴게 시간 확보와 원장 겸임 업무 부담 완화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시는 2023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해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5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시는 운영 여건이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업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지원 카드도 꺼내 들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120개소에 개소당 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에 시비 1억44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동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농촌 지역 어린이집 3개소(낙안·승주·별량 영현)에는 정부 지원 80%와 시비 20%를 추가 투입해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 농촌 지역 보육 공백을 막고, 지역 간 평등한 보육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 '24시간 안심 어린이집'과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더해 올해 전남형 거점어린이집 2개소도 추가 확충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난은 결국 보육의 질 저하와 부모들의 양육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어린이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부모는 비용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류 보육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엄마, 아빠랑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여수시는 최근 여수~연도 항로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여객선 운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여수~연도 선박 이용객 모습. 사진제공=여수시청

## 여수~연도 여객선 운항한다 명기해운과 협약 체결...내년 1월 취항

여수시는 최근 여수~연도 항로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여객선 운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선사사 경영난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자로 폐업을 신고함에 따라 연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항로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 주민과 시의회, 관계기관, 선사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사인 명기해운이 해당 항로를 운영하게 되며, 협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다.

명기해운은 170급 차도선(승객 150명, 승용차 20대)을 건조해 항로

에 투입할 계획이다. 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기존 항로와 운항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와 운항 협약에 따라 시는 항로 운영 결산액과 선박 건조 차입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선사는 신규 선박을 적기에 투입해 안정적인 운항을 맡게 된다.

시는 협약 체결과 함께 신규 선사사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신규 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통수단 확보를 넘어 섬 주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광양,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2~30일 110세대...무주택 저소득층 주거 지원

광양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광양과 우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11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4월 10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준에 따라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 입주자 선정된 경우 향후 공사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공포털에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광양시 건축과(061-797-288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총력

### 영호남 협력 공동 건의·8월 국회 공동토론회 준비

고흥군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문근주·서천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42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 내 시의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등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법 조속 제정 범군민 서명운동,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 고흥·사천 공동 건의문, 국회 공동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2개월 만에 1만9000여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했으며, 3월 25일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을 개최해 군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공론화했다.

4월 중에는 사천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에 특별법 조속 제정 공동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8월에는 국회 공동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출발점이자 미래를 이룰 핵심

거점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다"며 "범군민 서명운동과 공동 건의문 제출,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고흥군청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80여명이 최근 현충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독립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장흥군청

## 장흥,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현충시설 활성화

### 1학교-1시설 결연 협약...정기적 환경정화 활동 등 추진

장흥군은 최근 '1학교-1현충시설' 결연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흥향원중학교, 광주지방보훈청, 장흥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충시설과 학교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결연 대상은 '장흥향원중학교'와 '안중

근 의사 추모역사관 및 메모리얼 파크'로, 해당 시설은 지난해 4월 9일 국가보훈부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이 시설은 안중근 의사의 독립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조성됐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충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현충시

설 홍보·나라사랑 정신 확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80여명이 현충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독립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결연 협약이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충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 구례, 지리산남악제·군민의 날 18일부터 3개 구역 32개 행사

구례군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남악사, 화암사 시설지구,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제82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45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제례·공연·체험·경연 등 4개 마당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참여형 축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는 안전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가행진은 참여자 고려화에 따른 안전 문제로 추진하지 않는다.

군민체육대회는 참여형 종목 중심으로 개편해 큰공굴리기와 만보기 댄스 등을 도입하고, 축구·족구·씨름·계주 등 일부 종목은 참가 인원을 조정해 간소화했다. 또한 한국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읍면 주민대표 장기자랑'을 새롭게 선보인다.

행사 첫날인 18일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체육대회, 군민노래자랑이 진행된다. 19일에는 길거리 씨름대회, 읍면 읍 놀이 대회, 장기자랑과 함께 '추억의 동춘서커스'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남악제와 현궁대제, 읍면 농악경연대회 및 백두한라에올든 초창공연으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남악사예배장, 글짓기, 내 고장 문화재 그리기 대회, 전국 정가 시조 경창대회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구례=이민구 기자 city@gjdream.com